

4차 혁명 성공 위해 데이터·AI 활성화

정부,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열어...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AI 융합 추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활성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플랫폼 10개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AI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CD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데이터·AI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양질의 데이터 시장을 형성하고 고도의 AI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데이터 관련 시장 형성이 미진하다는 분석이다. 2017년 기준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이다. 미국과 기술 격차도 크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데이터 분야 기술력은 79, AI는 78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데이터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가치사슬 전(全)주기 활성화'다. 우선 금융·통신 등 다양

한 데이터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100개와 이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한다. AI 허브를 구축해 데이터·알고리즘·컴퓨팅과 위 등 관련 인프라도 한꺼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데이터와 AI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기업·대학·연구소가 모여 AI 관련 연구와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시설이다. 2029년 조성 완료로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데이터·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 2000명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만든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략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인공지능(AI) 유니콘기업 10개 및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이런 계획을 내실있게 실행해 데이터·AI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

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데이터·AI 경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미래 친환경 산업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에서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2018년 2000여대에 불과한 수소차 보급량을 2022년 8만여대까지 확대한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표준 선점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최종결과는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데이터·AI 경제 및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전으로 올라간 '산업혁신(Big-Innovation)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 활력 제고가 시급한 자동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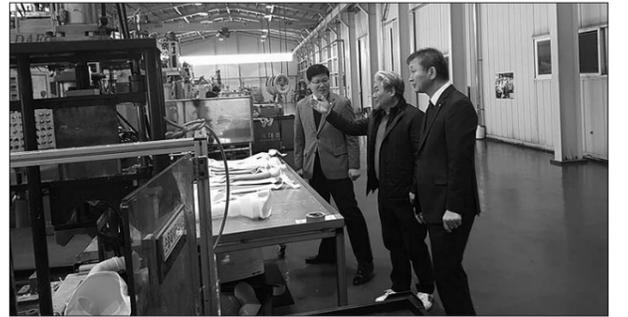
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은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관광·보건·게임 및 콘텐츠·블류 등 4대 서비스업종과 스마트공장 및 산단·미러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 두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전략회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와 달리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현장을 찾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유부즈만,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안국영 수호학회 명예회장, 유성준 세종대학교 교수,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도내 농협은행 거래 기업, 관내 영업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경영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도민과 상생하는 금융 위한 소통 행보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관내 거래기업·영업점 방문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2019년 기해년 시작과 함께 도내 농협은행 거래 기업, 관내 영업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경영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군산시에 소재한 군정에너지(대표자 박준영), (주)KTE(대표자 강호일)를 시작으로 농협은행 거래 기업체를 방문, 최근 도내 경기 동향 파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를 펼쳤고 금융거래 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농협은행의 모습을 청취했다.

또한, 16일에는 정읍시 하북동에 소재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대성비엔테크(대표자 정순현)를 방문해 농협은행 거래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에서의 경영 어려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경청했다. 이는 친체된 전북경제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김 본부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김 본부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8000여억원 지원계획을 설명, 관내 사무소장들에게는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민과 고객의 사랑을 받는' 농협은행을 만들겠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김 본부장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현장 소통행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경영계 만난 홍남기 부총리 "기업 부담, 정책에 반영"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정부 정책 관련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경제계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를 찾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계 경영계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업종에 대해선 적어도 다음달 말, 늦어도 1분기까지는 관련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부문에선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맘껏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소상인의 바람직한 롤 모델, 지역사회에 널리 알린다

전북중기청, 익산 대한서림·진미회관 백년가게 현판식 펼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16일 익산시에 위치한 '대한서림, 진미회관'에 대한 백년가게 인증 현판식을 전북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익산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낌없는 축하, 격려속에 가게 대표들의 화답과 함께 펼쳤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백년가게 인증 현판을 제공, 제막하여 대국민 신뢰도, 인지도를 높여 선정 가게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는데 있다.

또한, 김광재 청장, 내빈들은 가게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마련, 업체의 성장스토리와 애로,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현장 소통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로써 전북중기청은 지난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6일 익산시에 위치한 '대한서림, 진미회관'에 대한 백년가게 인증 현판식 현판식을 가졌다.

부안 '계화회관', 익산 '대한서림, 진미회관' 현판식을 개최함으로써 2018년 소상공인 백년가게 제5차 평가위에서 선정된 전북지역 3곳 가게에 대한 현판식을 모두 성공리에 마쳤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또는 가업을 이어 받아 운영 중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오래도록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로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배우자 사망시 2만원 더 받는다... 노령연금 인상추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만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면 수급 연령 도달 시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많다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는데, 본인 노령연금을 택했을 때 받기로 한 연금이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가 함께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가 성숙하면서 부부 모

두 가입기간이 길어져 노령연금이 많아지므로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 유족연금보다 본인 노령연금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중복수급자는 6만 1726명(남성 1만4752명, 여성 4만6974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약 40만615원이다. 이때 중복지급률이 40%로 오르면 월평균 급여액은 42만1357원으로 2만 742원 인상된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본인 노령연금액이 적은 여성(2만 1361원)이 남성(1만8770원)보다 2591원 많다.

다만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노령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중장기 제도개선 검토 과제에 고려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